

멘턴 참여자 성공사례

SSMM 원덕환 참여자

50+재단 중장년인턴십 지역기반형 동작구형 멘턴 프로그램
참여자 중 정규직으로 고용연계가 이뤄진 원덕환 선생님의
중장년 재취업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원덕환선생님은 20여년동안 입시학원과 전문학원을 운영하셨다.
그러나,코로나 팬더믹의 장기화로 인해 학원운영의 위기를 경험하면
서, 중장년 재취업시장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처음 활동은 22년에 동작구 보건소 보건기획과에서 기간제로 MZ세
대 공무원들과 근무하셨고,23년에는 멘턴 프로그램에 참여,사업 종
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셨다.

이에 원덕환 선생님의 중장년 재취업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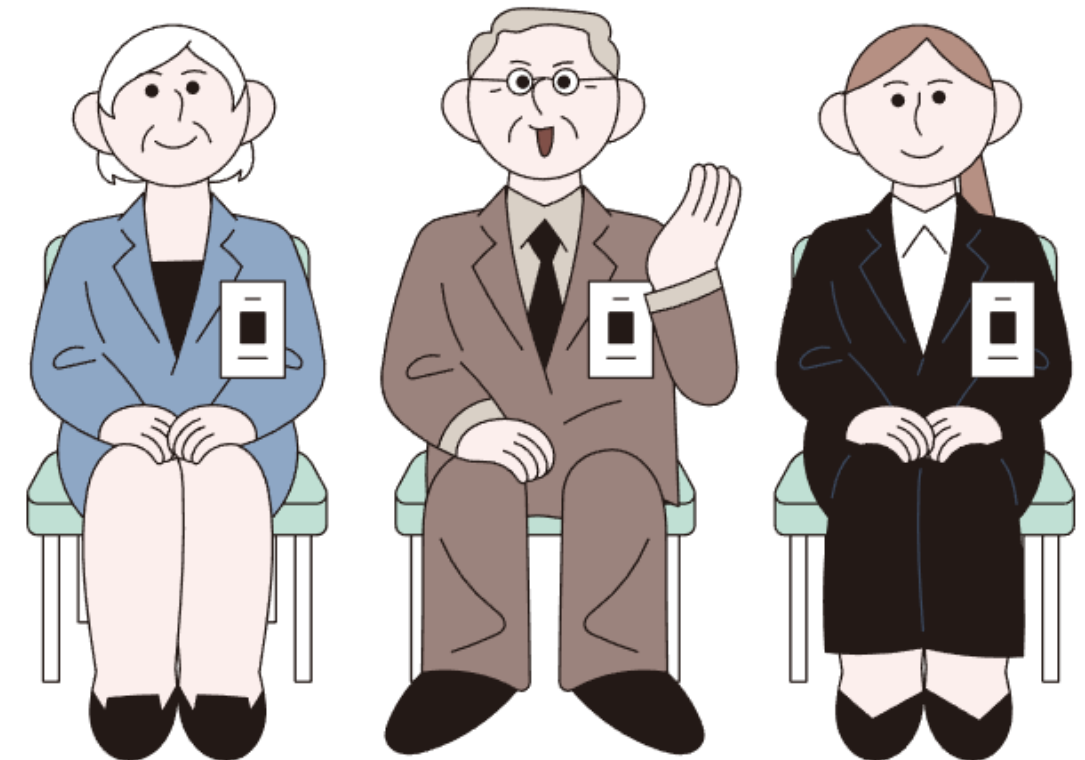
원덕환선생님은 긴 시간동안 학원 강사와 운영만 해 오셔서,다른 업종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으셨다고 한다. 그러던 중 코로나 팬더믹을 겪으면서 예상치 못한 학원폐업을 맞게 되었고, 50대중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하셨다고 한다.

코로나 패닉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폐업등 다양한 인생 경험들을 겪게 되었고, 새로운 사회 현상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상보다 빨리 다가온 새로운 시대는 중장년층에게는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다.

이런 위기의 시간이 원덕환선생님한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는 코로나 기간에 여기저기 일을 알아볼 때만 해도 기대 못 하셨다고 한다.

중장년 재취업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수많은 중장년층이 공감하는 대목일 것이다. 퇴직한 분들은 긴 100세 시대에 가능한 한 일 할 수 있을 때에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긴 경력단절을 겪은 분들은 이제야 남은 인생에 뭔가 해야겠다는 의욕으로 각 자의 명분으로 중장년 일자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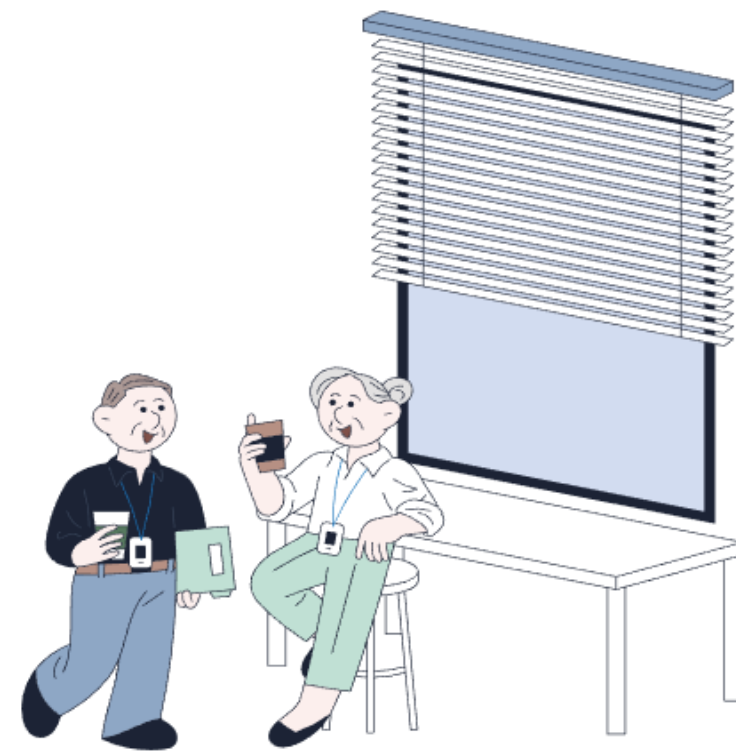




원덕환선생님은 2023년 중장년인턴십 지역기반형 동작구형 멘토 프로그램에 참여자로 참여, SSMM(스마트하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미디어&모빌리티 사업)에 인턴으로 지난 6월부터 일을 하게 되었다. AI기반 미디어 모빌리티 서비스회사로 자동차 공유임대 및 전동킥보드 관리 서비스가 주력 비즈니스인 SSMM은 공대출신이 아닌 원덕환선생님이 업무지원을 하기에는 너무 생소한 분야이기도 했다.



원덕환선생님은 엑셀부터 독학으로 지시받은 업무를 소화해 나갔으며, 영 모르는 것은 아들뻘되는 직원들 한테 물어가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일을 배우면서 시간이 걸려도 완수하셨다고 한다. 젊은 친구들이 30분이면 하는 작업을 몇 시간 걸려가면서 하나하나 일을 수행하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고, 차차 조금씩 자신감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내가 모르는 분야라고 두려워하고, 젊은 이들과의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선입감에서 벗어나서 다시 시작한다는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시작하셨다고 한다.



중장년 취업대상자를 향한 메시지

원덕환선생님은 3개월동안 적극적으로 인턴 업무를 하신 결과 멘턴 사업 종료 후, SSMM과 연구개발부 과장(정규직)으로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었고, 향후 부장 승진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새로운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이 재미있고, 물론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일을 배우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이번 기회가 매우 감사하고 본인과 같은 중장년 재취업의 성공사례가 많아지기를 진심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절망의 끝에서 길을 찾으셨고, 새로운 분야도 새로이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앞으로 갈 길은 멀지만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중장년 취업의 기회 창출을 위해 본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